

### 조계종 문화부장에 덕운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8일 문화부장에 덕운스님을 임명했다. 덕운스님은 "기준에 계획된 문화부 업무를 중심으로 차질 없는 중무행정을 펴나갈 계획"이라며 "성보문화재 관리와



### "전우애·신심으로 작업했어요"

#### 5사단 신병교육대 법당단청 6명의 병사

"96년 연천지구 수물로 숨진 선배장병들을 생각하며 5개월간 밤을 새우며 단청작업을 했습니다." 11일 개원한 5사단 신병교육대 법당 90평을 단청한 김지훈 이소진 신호윤병장, 송창근 정정현 김재홍상병은 미래대학중 군대에 입대했지만 불화를 접하기는 처음이었지만 불화집을 보고 공부하며 전우애와 돈독한 신심으로 단청작업을 여법하게 끝마쳤다. 고색창연함과 현대적 감각이 한데 어우러진 5사단 신교대법당 단청은 행사참

### 불자 민선단체장 명단 <6·4선거>

#### 광역 6명 기초 71명 당선

6·4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6명이 불자이며 또 232명의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불자는 71명을 차지해 당선자의 31%를 점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대구 울산과 경남·북에서는 전체 당선자 72명중 39명이 불자로 54%를 점한 반면 수도권에서는 불교는 1명에 그쳤다. 이밖에 교세가 약한 광주·전남권에서 기초단체장 22명중 7명이 불자로 밝혀졌다.

### 우리민족독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 주간모금 총액 16,914,190원

●주간모금 총액 16,914,190원 ▲나진·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1,445,000원(54명) △답사모임 '산해' 60,000원 △경희대사학과 '형제' 775,790원 △청년정보문화센터 715,000원 △광야교회 133,000원 △정도포교원 청년청토 100,000원 △부산정토법당 청년 정토를일구는사람들 355,400원 ▲주간 신규 결연단체 △선봉 옷작장탁아소(76명·380,000원)-경희대 한의대 학생회 △선봉 신희탁아소(95명·475,000원)-연세대 경영학과 '지음' 푸른하늘을여는사람들 ▲한끼줍기 모금총액 875,000(37명) ▲개인모금 총액 1,765,000원(44명) ▲단체모금총액 10,190,000원(2단체) ·후원금 접수 (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독기운동)

### 美 기정연합문화재단 참석



설정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스님은 11~1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문화체육대전'에 참석하고 13일 귀국한다.

### 기요 '부모은중경' 공연

지법 남재주군 불광사 주지는 23일 오전 10시 불광사 창건 기념법회 및 불빛가요 '부모은중경' 공연을 갖는다.

### 태고종 서부 본원장예

불산 진주 토왕암 주지는 20일 토왕암에서 태고종 서부경 남종무원 서부분원장 취임식을 갖는다.

### "김포학사 건립에 힘 모으려"

#### 중앙승가대 18대 학생회장 강하스님

"전종도들의 열의에 추진중인 김포학사 건립에 이 전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학생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8일 중앙승가대학교 제18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강하스님(북지학과3학년)의 당선소감이다. 스님은 "중앙승가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마찰을 빚었던 기원학사 문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세계불교서화전 금상

혜공 대구 성주사 주지는 5월30일 한국미술교류회 아시아서화협회가 개최한 세계 불교서화대전에서 '정관열불선'으로 서예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 영 엑시터대와 자매결연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영국 엑시터대학과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14일 출국했다.

### 국군장병 위문 행사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은 10~11일 양일간 강원도 해군 1함대에서 개최된 방송협회 98년도 1차 이사회 및 임원진 국군

### 제7회 행원문화상 준비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제 7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추천을 공고했다. 역경·문학·예술 부문 4명에게 수여하는 이번 행원문화상 추천 마감은 30일. (02)926-4377

### 운현궁서 '서울 江' 전

이억영 화백은 한강연작전의 네 번째 개인전인 '서울 江'전을 24~30일 서울 운현궁 미술관에서 갖는다.

### 수원 보결선거 공천신청

정관희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 부회장은 7월21일 실시되는 수원 팔달구 국회의원보결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회의에 공천신청서를 냈다.

### 수덕사 박물관 답사

이재순 대한민국의학전문대학 조교학장은 13~14일 수덕사 및 개심사 건축박물관을 순례 답사했다.

### 佛 예술문화회장 받아

안숙선 씨(국악인)는 전통예술에 기여한 공로로 7월13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아비뇽 불복공장에서 '예술문화회장'을 받는다.

### 교차로



### 동신반이회 심준불 정안

김재일 동산반이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동산법당 2층 교육회관에서 심준불집안식을 봉행했다.

### 치일혁 총경 공적비 제막

차길진 후암정사 법주는 20일 전남 구례 화암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종단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일혁 총경 공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 수원 보결선거 공천신청

정관희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 부회장은 7월21일 실시되는 수원 팔달구 국회의원보결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회의에 공천신청서를 냈다.

### 수덕사 박물관 답사

이재순 대한민국의학전문대학 조교학장은 13~14일 수덕사 및 개심사 건축박물관을 순례 답사했다.

### 佛 예술문화회장 받아

안숙선 씨(국악인)는 전통예술에 기여한 공로로 7월13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아비뇽 불복공장에서 '예술문화회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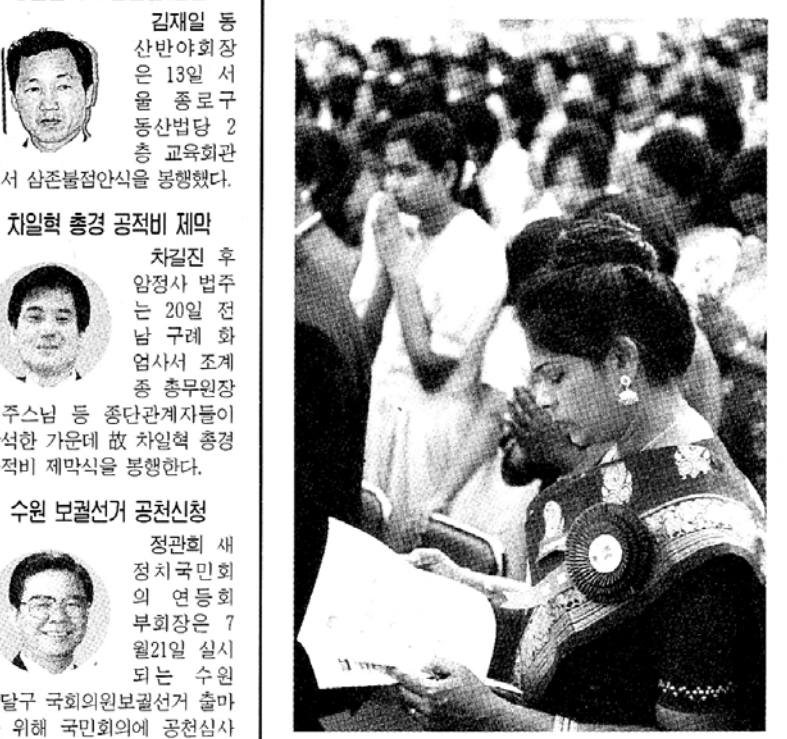
### 버려진 두살바기 새삼 찾아

#### 감로심장회 언영희·심장병 수술

선천시 인면기형(언영희)에 심장병이 겹쳐 고통받던 고아 이도현(2) 어린이가 감로심장회(회장 보운스님)의 지원으로 10일 마산 의료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이도현 어린이는 진해시 재활원 앞에 보자기에 싸여 버려져 있는 것을 마산시청이 지난해 2월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애리야동상당소에 인수해 수용되었다. 이름은 마산시청에서 지어준 것. 보운스님은 "요즘은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난으로 감로심장회에 지원요청을 하는 환자가 늘고 있으나, 반대로 후원금은 줄어들고 있어 환자들의 요구에

### 제20교구본사 선암사 문제에 대한 조계종총무원 및 전남지역 5개 본사의 입장

제방에서 수행과 불행종포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대덕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94년 개혁 이후 조계종단은 승가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 그리고 제도정착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현재까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해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승가교육체제를 정착시키고 포교·전법활동을 활성화했으며,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을 크게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계종의 이러한 노력은 사부대중은 물론 일반 국민의 호응을 받아 사회 속에서 조계종단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근대 이후 우리의 불교사는 불교 외적인 도전으로부터 범종을 수호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켜온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선지식들이 이 시기 동안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한국불교의 범종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였기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한국불교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가장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 바로 50~60년대 수행의 전통을 확립하고 재색불교를 혁파하기 위해 전국의 선지식들이 떨쳐 일어섰던 정화운동입니다. 효봉, 동산, 금오, 청담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께서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 정화운동에 나서 한국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행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불어 정정가람을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불교조계종은 이 정화운동의 이념을 가장 원초적인 바탕에 두고 그 기틀 위에서 있는 종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조계종 제20교구 본사인 선암사에서 태고종단측에 의해 있었던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었습니다. 엄연히 법적인 소유권이 대한불교조계종에 있음에도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총무원을 그곳으로 옮기고 승려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묵은 조-태간의 분쟁을 다시 야기시켰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자면 선암사는 1965년 11월 9일 조계종 제20교구 본사로 지정된 후 공부상 모든 재산권이 조계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계종 소속 사찰입니다. 이는 1970년 4월 9일, 한국불교태고종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 주무당국인 문화공보부에 종단등록을 신청한 서류 중 첨부된 각서와 태고종 종헌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살펴본다면 태고종이 문화공보부에 종단등록 할 당시 태고종 종헌에 명기된 사찰은 신규사찰인 극락사와 승가암 두 곳밖에 없었으며, 태고종 종정인 박대문 스님과 총무원장 박갑득 스님을 비롯한 총무, 교무, 재무부장의 연서로 제출한 각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명사를 하면서 전통사찰과는 일체의 관련없음을 자인했습니다. "...[전락] 앞으로 소송행위 등 일체의 분쟁요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거듭 맹서합니다. 현재 경향각지의 사찰의 관련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각급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본 종단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음을 아울러 천명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 종단에서 등록을 필한 후에 위 각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귀부의 어떠한 처벌이 있을지라도 이를 감수하겠는 바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 각서는 태고종단이 도덕적인 면에서 전통사찰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또한 1969년 10월 23일에 있었던 '동원계정결의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 최종판결을 통해서 한국불교



### 피부색 달라도 佛心은 하나

언어와 피부색은 다르지만 부처님을 향한 합장 삼배(三拜)는 한국의 공통어인가 보다. 서울 신림동 보명사(주지 상원)에서 9일 열린 석가모니 불 사리봉안 16주년 기념법회에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보명사 법회에서 외국인들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다. 어떤 보살이 "주한 외교관 부인들 중에서 불교 신도라면 한 번씩은 보명사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귀띔해 준다. 보명사를 찾는 외국인이 많은 것은 스리랑카 최초의 사원인 이 수루무니 사원에 2천3백년전부터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 중 1과가 보명사에 봉안된 것이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들 사이에 잘 알려졌기 때문이다. 상원스님은 "예전에는 초하루 법회때마다 주한 외교관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지금은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법회마다 외교관 가족들이 자주 찾아온다"며 "앞으로 주한 외교관과 일반 외국인들이 근본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바레고 수원인 러시아 공사를 비롯해 반홍 베트남 대사, 몽갈바트라 몽골 대사, 폰이인트 미얀마 대사 등과 그 가족들이 참여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 성명서

#### 제20교구본사 선암사 문제에 대한 조계종총무원 및 전남지역 5개 본사의 입장

의 범종은 조계종에 있음은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는 곧 선암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은 내포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30년 동안 각종 소송을 통해 선암사를 비롯한 태고종 무단점유 사찰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을 확인받았으며, 태고종이 종단등록을 마치고 난 후인 1971년 9월 20일에는 전국의 태고종 무단점유 사찰이 등기를 조계종 명의로 받아냄으로써 등기상으로도 조계종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계종은 종단 간의 화합과 전체 한국불교의 안정을 위해 태고종의 무단점유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고 이 문제는 양 종단 간의 양보와 화합을 통한 지혜로운 해결만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종과 태고종 간에 조-태분규 수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화해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조계종은 지난 82년부터 94년 종단개혁 직후인 95년도까지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고종단의 조치는 지난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970년에 종정 이하 태고종단의 지도자 스님들이 쓴 각서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불교 외적인 정치권력이나 사법권으로부터 문제를 개입할 여지를 열어준 반불교적이며, 비자주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전남지역 5개 본사에서는 태고종단이 종단설립시 애초 인정했던 바대로 선암사가 본래 조계종 사찰임을 다시한번 경히 인정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조속한 시간 안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불기 2542년 6월 10일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 제18교구본사 백암사주지 지 선
-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종 열
- 제20교구본사 선암사주지 세 민
-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현 지
- 제22교구본사 대둔사주지 상 원